삼나소식

132호
11월 8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창세기 24장 1절 ~ 9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로, 예수의 아내로 영원한 혼인 잔치를 향해 먼 길이지만 진군해 가야 됩니다.
>
> – 본문 주일설교 (10/25) 중 발췌·정리 –

창세기 24장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택해 결혼시키는 단순한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예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늙은 종은 성령 하나님을,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부 리브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험을 거친 후 사라가 죽은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뜻하며, 이삭이 신부를 만나는 사건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참된 교회가 탄생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범사에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로 시작하고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행함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선언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마치 광복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듯, "너희는 죄가 없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내 타락한 생각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로 귀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가는 삶입니다. 내 옛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살아 있어 스스로 염려하고 모든 일을 지탱하려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지만, 내 자아가 죽고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들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단단한 벽돌을 빚는 이유가 결국 집을 짓기 위함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어가기 위함입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손이나 발, 혹은 세포와 같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속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세속적인 조직체로 전락하여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성도 각자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처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 노릇 하시는 거룩하고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듯, 오늘날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한 소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신랑 이삭의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각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하며 따라나섰듯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세상에 얽매였던 줄들이 잘려 나가고 오직 예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상처, 실패 속에서도 예수를 참된 신랑으로 모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넉넉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의 배필이자 사랑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육신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내 안의 성령을 따라 영원한 하늘의 혼인 잔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4)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The Glory and Hope of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Passage: Genesis 24: 1-9 (ESV)
Pastor: Dong Suk Chung
This QR code is for the full sermon

At first glance, Genesis 24 looks like a simple family matter: Abraham sends his oldest, most trusted servant to choose a bride for his son Isaac. But the true spiritual reality embedded within it is a redemptive foreshadow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Church as His bride. The people and events recorded in Scripture are revelations given to each of us living today. In this passage, Abraham represents God the Father, the old servant represents God the Holy Spirit, Isaac represents God the Son, Jesus Christ, and the bride Rebekah represents the church of today.

As Abraham reached an advanced age and was blessed by the Lord in all things, we are also people of faith who are saved not by our own merit or effort, but by God's sovereign calling and grace. All of humanity was born as sinners because of the sin of the first man, Adam. But God wanted to make a fresh start for humanity and sent Jesus Christ in human form as the last Adam.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we have been declared righteous before God and made into new creations in Him. While the Old Testament era was an age of works, the present era is an age of faith where we receive the proclaimed good news of salvation. When people first heard the news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ey accepted the fact that they were now free, whether they felt a sense of freedom or not. The moment the treaty was signed, they were free. Their feelings and thoughts did not change the truth that they were now free. In the same way, true faith is to receive and enjoy God's declaration, "You have no sin; you have been made righteous," just as it is spoken, without doubt. Whether we feel that freedom within us or not, it is the truth.

God's ultimate purpose is not our individual salvation. His primary purpose is to build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e bride of His Son. Just as clay is crafted into sturdy brick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building a house, God grants us new life in Christ so that we may build up the Church, which is the house of God. A brick on its own is useless, no matter how precious it is. A faith that is merely satisfied by one's personal salvation is an incomplete, half-formed faith. The purpose of redemption is fully realized when each believer discovers their exact place and calling in the body of Christ: as one cell that is part of a hand or a foot.

Many Christian communities today have fallen into being mere worldly organizations, driven by envy, judgment and resentment. But the true church must be a holy, living organism in which each member's ego is being thoroughly dealt with at the cross, and Jesus Christ alone reigns as King.

True worship is not merely gathering once a week to sing hymns; it is a daily life where our self-will and worldly thoughts are continuously crucified on the cross. Only when our "old self" dies can Jesus Christ within us come alive to manifest God's living presence. If we remain self-reliant, consumed by worry, and trying to sustain everything on our own strength, the Lord cannot work within us. But when the "old self" dies and we walk in step with the Lord, we experience a life overflowing with hope and joy through Him—who is the source of all wisdom and knowledge—regardless of human knowledge or external circumstances.

Just as Abraham's old servant represents God the Spirit, the Holy Spirit today guides believers into the truth and helps us understand the glory of Jesus Christ and the abundance of His blessings given to us. When Rebekah heard news of the bridegroom Isaac through the servant, she decided at once saying, "I will go", despite her family's hesitation. Likewise, as we continually listen to the Wor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ties binding us to the world are severed, and a deep longing for Jesus alone grows within us. When we receive Jesus as our true Bridegroom, even in the midst of the world's troubles, wounds, and failures, we receive a sense of peace and abundan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We did not choose God; God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alling us to be the companion of His Son, the object of His love, and the bride of Jesus Christ. Therefore, let us not be shaken by the demands of the world or the flesh. Day by day, as we put our "old self" to death and follow the Holy Spirit within us, let us march boldly toward the eternal heavenly wedding feast and fully build up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